



특집 _ 2026년 재외동포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기획 _ 24시간 글로벌 소통 플랫폼 '동포ON'
신년 인터뷰 _ "700만 동포는 시혜 대상 아닌 대한민국 소중한 파트너"
이달의 재외동포 _ '태권도 한류의 시초' 이준구 사범
이슈 앤 화제 _ 재외동포, 일본은 늘고 중국은 줄었다



2026년 재외동포청장 신년사



존경하는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6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재외동포청은, 보다 효과적인 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동포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6개월간 9차례의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 사회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셨습니다.

소통 플랫폼「동포ON」방송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이관받아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영주귀국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및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2026년 새해는, 동포 지원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동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재외동포 정책의 기초가 되는 동포 현황과 해결 과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동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구비서류 간소화, 재외선거인 등록 연계, 출국 전 사전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내 출입국 절차와 국내 활동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동포 사회의 오랜 고충이자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투표하기 위해 수백~수천km를 이동하거나 포기해야 했던 선거권, 재외국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인 정체성 교육의 핵심인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율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하고, 동포청·교육부·문체부 등이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 콘텐츠 개발과 교사 초청연수 통합 운영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도 적극 추진하고 동포 밀집 거주지역 재외공관에는 동포전담영사를 복원하여 현장 밀착형 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동포 사회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세대·직종·분야를 아우르는 '세계한인대회'를 신설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상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며,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거주국 내 동포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동포 공공외교 활동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구가 역할을 분담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귀환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고려인·사할린·입양·재일·원폭

피해 동포 등에 대한 귀환·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귀국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이 연계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포청년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합하여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외 동포간 상호 교류 지원 등 포용적 사회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외동포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정부 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동포청과 지방정부 간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통상, 외교·평화 등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갖춘 동포 전문가로 구성된 '재외동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재외동포가 동포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여러분!

모국의 위상이 재외동포의 위상으로 직결되고 재외동포의 위상이 모국의 위상으로 직결되는 시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는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입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과 한민족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바탕으로 8천만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날을 향해 뚝뚝 함께 걸어갑시다.

역동적인 성장과 도약을 상징하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 뜻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창**



- 02 창을 열며** 2026년 재외동포청장 신년사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 04 특집** 2026년 재외동포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있게 답하겠습니다”
- 10 기획** 24시간 글로벌 소통 플랫폼 ‘동포ON’
“가능성 보인다”... ‘동포ON’ 안정적 출발
동포ON에 바란다 -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이미아 한불문화교류협회장
- 14 인터뷰** “700만 동포는 시혜 대상 아닌 대한민국 소중한 파트너”
- 16 이달의 재외동포** ‘태권도 한류의 시초’ 이준구 사범
- 18 이슈 앤 화제** 재외동포, 일본은 늘고 중국은 줄었다
- 20 초대석** 고려인 3세 미술 거장 문빅토르
“광주는 할아버지 고향이자 내 마지막 안식처”
- 22 뉴스속으로** “음악으로 하나 된 밤”...재외동포 아티스트 모국 무대
고려인 청년들, 호텔서비스 배우며 취업 역량 키워
- 24 OKA 뉴스**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지원...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외
- 25 기고문** 한글학교는 동포사회의 뿌리
‘학생 기자단’으로 현장을 알리고 미래를 연다
황현주 미국 뉴저지한국학교장
- 26 재외동포청 공지** “궁금증 한눈에”...사할린 동포 법률 사례집 발간



발행인: 김경협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있게 답하겠습니다”

동포청, 2026년 업무추진 계획 발표...차별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 실현 동포 DB 구축·핵심 민원 해소·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등 5대 중점 과제 설정

재외동포청이 동포 DB 구축을 통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동포 영사 확충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나선다. 아울러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과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로 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 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한 ‘202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 제19회 한인의 날 기념식

1 동포 핵심 민원 해소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과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한 재외동포 정책 개선에 나선다.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한글학교 지원 확대, 동포전담 영사 확충,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재외선거는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총 8차례 실시됐으나, 복잡한 사전 신고 절차와 재외공관 중심의 투표 방식으로 인해 참여율은 재외선거권자 약 200만 명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총선의 경우 참여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외선거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해 현재 재외국민 3만 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3개소로 제한된 추가투표소 설치 요건을 2만 명당 1개소, 최대 4개소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는 118개국에 223개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바 있다.

격오지에 거주하는 재외유권자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지정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식 투표소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외투표 시간과 기간을 국내 투표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장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역시 현행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로 제한된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신고·신청 절차 간소화도 주요 과제다. 재외국민등록과 재외선거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관에는 동포 전담영사를 활용해 재외국민등록과 선거 관리·홍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표 방식 다변화도 병행 추진된다. 블록체인 기술과 ARS 등 본인확인 방식을 활용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



2026 업무추진계획 브리핑하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우편투표가 도입될 경우 재외선거인 수는 최소 2배 증가하고, 이 가운데 70%가 우편투표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법 개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 정체성 교육의 핵심 축인 재외 한글학교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한글학교는 동포 개인과 민간 단체의 헌신에 의존해 운영돼 왔으며, 정부의 운영비 지원은 전체의 30% 수준에 그쳤다. 또한 재외동포청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의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교재와 교사 연수, 시설 지원에서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및 체계 정비

정부는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2025년 186억 원에서 2026년 195억 원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250억 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과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외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표준 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배포하고, 교사 초청 연수 통합 운영과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외공관의 동포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동포전담 영사 확충도

추진된다.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 파견됐던 동포전담 영사 7명이 모두 철수하면서, 공간 내 동포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공간 인력은 사건·사고 대응과 비자, 여권 업무 등으로 과중한 상황이다.

동포전담 영사 확충...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정부는 '동포청-재외공관-동포단체'로 이어지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 재외공관의 영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동포 인구 밀집 지역 등 핵심 공간 18곳에 동포청 전담 영사를 단계적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외선거 참여 제고, 동포 인적자원 관리, 재난·사건 대응 보완, 동포단체 간 갈등 조정 등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동포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연령 하향에 대한 동포사회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 효과를 평가해 추가 하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동포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2 동포 DB 구축

재외동포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와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 현황 조사 체계를 보완하고,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과 외국국적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동포청은 현재 매 홀수년마다 거주국별 재외동포 수를 파악하는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5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700만6천70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행 조사는 거주국·성별·거주자격 등 단순 통계에 머물러 있고, 국가별로 상이한 통계 환경과 재외동포의 높은 이동성으로 인해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외동포와 통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외동포통계위원회'를 운영해 통계의 공신력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재외국민등록은 90일을 초과해 해외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관할 공관에 등록하도록 한 법적 의무 제도지만, 미등록에 따른 제재 수단이 없고 등록에 따른 실질적 혜택도 부족해 등록률이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거주 자격별로 보면 재외국민은 240만2천26명 가운데 2025년 10월 기준 실등록자는 94만 명에 그친다.

동포 DB 구축을 통한 정책 기반 고도화 추진

정부는 구비서류 간소화, 재외선거민 등록과의 연계, 출입국 정보 연계를 통한 출국 전 사전등록제 도입, 갱신제 도입, 출국 시

문자 발송 등 홍보 강화를 골자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인증제'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재외국민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체류주소, 연락처, 직업, 전문성 등 기초 데이터의 축적과 관리가 미흡하고, 한인회·한상기업 관련 정보 역시 자발적 제공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동포청 주관 사업과 행사 참여자에 대해 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포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상에는 한인회장대회, 한상대회, 차세대대회, 입양동포대회,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정치인 포럼, 차세대 모국연수, 각종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장학사업 등이 포함된다.

인증제 안착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동포청 지원사업 신청 시 인증 동포를 기반으로 한 단체 회원 명부 제출을 유도하고, 지원 심사 과정에서 이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또 개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동포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금융, 공공기관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활용 가능한 '재외동포 본인인증 서비스'와의 연계도 검토된다.

3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거주국 내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한편, 동포 역량을 활용한 공공·경제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할 방

침이다.

우선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재검토한다. 일부 민감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관여하거나 단체를 지원할 경우 거주국과의 외교 갈등이나 내정 간섭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재외동포협력센터 개편

또한 재외동포청과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간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온 만큼, 업무 중복과 혼선을 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동포 행사가 세대·직능·분야별로 분산 운영돼 전체 한인사회를 포괄하는 플랫폼이 부재하다는 점과, 상당수 동포단체가 대표성과 내부 결속력이 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회원 명부가 없거나 제한적인 방식으로 회장이 선출되는 구조 역시 개선 대상이다.

이에 동포청은 기존 틀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세계한인대회'를 신설해 정례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한인회장단뿐 아니라 한상, 직능단체, 청년과 차세대 리더까지 포괄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동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이를 통해 동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외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공식 채널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국체육대회 내에서 운영되던 동포대회를 분리해 '세계한인체육대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통해 동포의 참

여 기회를 확대하고, 동포 체육행사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인회 조직 체계 정비도 병행된다.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포청장의 역할을 민간으로 이양해, 동포사회 현안을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회의체로 전환한다. 아울러 한인회가 표준화된 회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정부의 동포 정책 수립과 지원 기준에 연계해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미주·아주 등 대륙별 한인회장대회와 한상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별 지부 결성과 동포사회 역량 결집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인증제와 연계해 한인회 명부 관리와 회장 선거 개최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동포 역량을 활용한 공공·경제외교 활동 지원

동포 역량을 활용한 공공·경제외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K-컬처 확산과 함께 거주국 내 동포사회의 정치력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포를 민간 외교관이자 시장 개척자로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예술 등 주류 분야에 진출한 동포 전문가를 발굴해 국익 기여 활동을 지원한다. 거주국과의 공동 번영, 한반도 평화 증진, 한인·한글·김치의 날 제정 등의 활동이 그 예로 제시됐다.

대통령의 거주국 방문을 계기로 한·거주국 간 친선주관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문 전후로 동포와 현지 유력 인사의 역량을 활용한 교류·문화 행사를 열고, 현지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한국어 강좌 등 공공외교 사업에 다양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계층의 동포 참여를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한상대회와 대륙별 한상대회, 지자체 연계 세계 한상포럼을 개최하고, 재외동포비즈니스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상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울러 현재 동포청과 산업부로 나뉘어 운영 중인 한상단체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일원화 방안을 협의한다. 한상을 활용한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중복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4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동포청년과 역사적 특수동포의 국내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재외동포청은 우선 국가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정착' 사업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인재가 부족해지면서 지방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장학금·교육·취업·정착 패키지로 이어지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관련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추진되며, 2026년 신규 예산 30억9천만원을 토대로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2025년 12월 12일 해외 청년동포를 대상으로 한 지원 공고를 낸 바 있으며, '(가칭)해외 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상반기 중 제정을 추진한다.

동포청년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이와 함께 고려인·사할린 동포·입양동포·재일동포·원폭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들 동포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과 언어·문화적 장벽을 겪으며 국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을 지속하고, 입양동포 커뮤니티 센터 운영과 함께 맞춤형 한국어 교육,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의 통합도 추진한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귀환동포 정주 정책도 병행된다. 동포 인재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 산업 수요에 맞춰 '지역특화형 비자'를 재설계하고, 지자체 국고 보조를 통해 동포 거주 지역별 맞춤형 정착 사업을 추진한다. 이울러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재일동포와 원폭피해 동포, 입양동포에 대해서는 상환 치유와 지원을 지속한다.

귀환동포 정착 지원 전담 조직 신설

귀환동포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귀환 동포의 국내 정착에 필수적인 체류자격, 취업, 교육, 다문화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조정과 통합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정착 실패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 내에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해 귀환동포 정착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국내외 동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포 역량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기능도 맡는다.



국내 동포 정착 지원 위한 정책 대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동포 맞춤형 통합 지원도 실시한다. 귀환동포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정착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한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계와 동포 특화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을 돕고, 한국어와 문화 이해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귀환동포의 친인척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동포 간 교류를 지원하고, 지역 봉사활동과 연계해 포용적 사회 통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5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이 다수 부처에 분산돼 추진되면서 정책 일관성과 정책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기획·조정·집행 기능을 일원화하고, 재외동포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며, 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동포청 출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외동포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 정체성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외동포청을 제외한 일부 부처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이 외국인 정책이나 이주민 정책의 일환으로 혼재돼 다루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책 전반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

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획과 조정, 집행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에 산재한 재외동포 관련 법규와 사업을 전수 조사한 뒤, 재외동포청 주도로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귀환동포 정착지원(법무부), 재외한국어 교육기관 운영(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립방향의 동산 이관(보건복지부), 세계한인의 국내 경제 지원 활동 효율화(산업통상자원부),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동포 자녀 지원 업무 일원화(성평등부) 등이 대표적인 통합 검토 대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재외동포청과 지자체 간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자는 구상이다.

재외동포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외동포 자문위원회' 운영이 제안됐다. 이 자문위원단은 재외동포가 정책 발굴과 자문, 평가,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통상, 외교·평화 등 분야별로 직능과 세대, 지역을 고려해 대표성을 갖춘 동포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문위원단은 정기 및 수시 자문을 통해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 왜곡된 정보 확산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혐중 정서와 맞물려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가 제시됐다.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동포ON'과 언론·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해 동포의 성공 사례와 미담, 국가 기여 활동을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과 확산을 지원하자는 방안이다. 다만 2026년도 소통 플랫폼 예산 3억3천만원은 최소한의 운영을 충족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내국민과 재외동포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동포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과 문화 행사, 스포츠 교류 등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가능성 보인다”… ‘동포ON’ 안정적 출발

다국어 서비스 · 홍보 확대는 과제…동포사회 “러시아어 · 영어 자막 필요”
출범 100일 맞는 3월 대폭 개편…한인방송 등 동포 매체와 협업 추진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를 잇는 24시간 유튜브 방송 플랫폼 ‘동포ON’이 출범 50일을 맞아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속에 다국어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다양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24시간 라이브를 지향하는 ‘동포ON’은 재외동포청이 한국 뉴스와 동포 정책, 한국어 교육, K-팝,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등 재외동포 관심 분야를 한데 모은 ‘원스톱 콘텐츠 허브’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9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범 초기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됐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동포 관련 자체 제작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점차 안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동포사회의 전반적인 평가다.

현재 구독자 수는 1만9천500명이다. ‘동포ON’ 공식 티저 영상은 조회수가 50만을 돌파할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아직은 출범 초기여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가능성을 봤다”면서 “동포 ON이 동포사회와 모국의 소통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보 부족 문제…이벤트 등 통해 널리 알려야

다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 대다수의 동포가 동포ON 출범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지 않았다는 반응이어서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적인 이벤트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실제로 동포ON은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라는 이벤트와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지급한다.

또한 24시간 송출 체계에 비해 자체 제작 콘텐츠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동포사회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거나 이미 방송된 MBC 프로그램이 재방송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방송 중 일부 끊김 현상 등 기술적 안정성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동포ON’ 홍보 포스터

가장 큰 과제로는 ‘언어 장벽’이 꼽힌다. 현재 대부분의 콘텐츠가 한국어로만 제공되면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동포들에게는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동포ON은 재외동포 거주 지역별 시차를 반영해 프라임타임 시청이 가능하도록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재외동포청은 24시간 송출 체계 구축과 함께 모니터링 인력 배치, 백업 시스템 운영, 주간 편성표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케이팝 온에어’ 앰퍼샌드원 조회수 157만 기록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으로는 ▲케이팝 아티스트

와 차세대 동포가 함께하는 '케이팝 온에어' ▲재외동포의 한국 체험을 대신 전하는 '대신해드립니다' ▲동포사회 주요 이슈와 정책·문화 뉴스를 전하는 '주간 동포리포트'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K-클립' ▲동포들의 삶을 조명하는 '동포인사이드' 등이 꼽힌다.

특히, 케이팝 아티스트와 차세대 동포가 함께하는 '케이팝 온에어'는 그동안 비보이즈(BE BOYS)를 비롯해, 엘라스트(ELAST), 엑신(X:IN), 앰퍼샌드원(AMPERS&ONE), 리센느(Rescene), 나우즈(NOWZ)RK 출연했다. 특히, 앰퍼샌드원은 조회수 157만을 기록해 조회수가 가장 많은 콘텐츠로 등극했다.

국내 정착 동포들 삶 조명 '동포인사이드'도 눈길

국내 정착 동포들의 삶을 조명하는 '동포인사이드'도 눈길을 끄는 콘텐츠다. 첫 회에 한국에 온지 10년 된 고려인 고려대생의 하루를 다뤘다. 22일 현재 조회수 50만을 훌쩍 넘었다. 2회는 크리에이터로 성공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앙골라 혼혈양자 마쭈 돌이의 하루를 실었다.

3회는 사업부터 자식농사까지 성공한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체예진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이사장을 소개했다. 한국에 온지 17년차를 맞은 채 이사장은 방송에서 재외동포청 OK Biz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전했다. 동포인사이드는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방송됐다.

조회수 157만회 기록 중인 '케이팝 온에어' 앰퍼샌드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K-clip' 인기

K-콘텐츠로 배우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K-clip'은 회차가 갈수록 조회수 최고 76만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더 하고 있다. 한국인이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할까 등에 대한 궁금증을 소개한 첫회는 한국인의 첫 인사 4가지 표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등을 실제 방송 드라마와 함께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한 '눈'과 관련된 표현, 입맛을 돋을 '입'과 관련된 한국어, '손'과 관련된 표현, 한국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한국어,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관계 한국어로 표현하기 등 지금까지 8회에 걸쳐 방송됐다.

'주간 동포리포트', 글로벌 피플 스토리 코너 주목

'주간 동포리포트'는 국내외 주요 뉴스와 재외동포청의 공지사항과 함께 화제가 된 동포 인터뷰가 진행된다. 지난 20일 방송된 '주간 동포 리포트'(진행 염기훈·양효걸)에서는 이란 내부 정세 악화와 미 연준의 독립성 논란 등 긴박한 국제 정세와 더불어 한일 관계 변화, 호주 이민 정책 개편 등 동포 사회의 주요 현안을 집중 보도했다.

'글로벌 피플 스토리' 코너에서는 중미 지역 경제계의 거물인 카이사 그룹 하경서 회장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엘살바도르를 기반으로 15개 기업을 운영하는 하 회장은 사업적 성공 못지않게 재난 구호와 기부 활동으로 현지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다.



하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사업 성공의 핵심은 현지 문화와 법을 존중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며, 해외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AI 시대가 도래하기 전 소프트웨어 파워를 갖추고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공항에서 만나는 첫 사람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며 한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이 다문화 취약 동포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특히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의 한국 국적 자녀(약 2만 명 추산)들의 교육과 정착을 돕는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알렸다.

또한, 1월 13일 오사카에서 열린 ‘차세대 미래비전 포럼’ 성료 소식과 함께,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되고 이준구 태권도 사범의 업적을 기렸다. 이 사범은 미 펜타곤과 하원의사당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이민자 203인’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방송은 이 밖에도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법률 상담 사례집 발간 내용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동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와 함께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당선작 낭송, 2020 도쿄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 안창림 선수 이야기, 사할린 동포와 쿠바·브라질 한인 후손 등 세계 각지 동포들의 삶을 소개한 콘텐츠도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안산 땃골마을과 인천 함박마을 등 고려인 밀집 지역을 다룬 팀방 프로그램은 공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재외동포청은 서비스 100일을 맞는 오는 3월을 기점으로 자체 제작 콘텐츠를 확대하고, KTV(국정 홍보), 아리랑TV(다국어)와



‘주간 동포리포트’

해외 한인 방송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황진이 등 재외동포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최신 K-문화 소개, 다큐멘터리 등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영어·러시아어 등 다국어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국가·시간대별 편성 블록을 도입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동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콘텐츠 수급이 가능한 해외 한인 방송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있는 재외동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가 궁금해하고 꼭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24시간 제공하고, 여기에 우리 동포들이 동포ON 채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으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포ON이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새로운 소통 창구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새해 떡국 만들기 '대신해드립니다'



고려인 고려대생의 하루를 담은 '동포인사이드'

세대 간 균형 고려한 콘텐츠 확장 중요한 요소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길”

동포ON을 시청하다 보면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동포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 한다. 현대 한국 사회의 개방성과 다문화적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러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시청자 입장에서는 동포ON이 재외동포를 위한 채널인지,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다루는 채널인지에 대해 그 정체성을 명확히 기능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출범 초기에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주요 청중과 편집 방향에 대한 보다 분명한 기준 설정은 채널의 신뢰도와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포ON이 지닌 가장 큰 가능성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 환경, 다른 세대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서로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채널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동포ON을 이미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도 형성되고 있는 과정의 플랫폼으로 바라본다. 앞으로 이 채널이 언어 장벽을 낮추며, 특정 세대에 치우치지 않고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면, 동포ON은 국가와 동포 사회를 잇는 신뢰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동포를 ‘연결’ 하는 짙 플랫폼이 되길”

이미아 한불문화교류협회장 “‘보는 플랫폼’에서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겠다는 야심찬 ‘동포 ON’의 출범에 기대가 크다. 프랑스에서 25년 넘도록 한불 문화교류 현장을 직접 뛰며 경험한 재외동포 단체장인 한 사람으로서, 이 플랫폼이 단순 홍보 채널을 넘어 동포 사회의 지식과 경험, 문화적 감성을 연결하는 공적 인프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정책 소식 전달 창구’를 넘어, 동포가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 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각국 한인 사회가 겪는 교육·문화·행정 현장의 이슈를 모아 정책 피드백으로 연결한다면, 동포들은 “국가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뢰와 소속감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청년 전담 코너에 현지어·한국어·영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터뷰와 공연·전시 소개, 협업 공모를 정기화한다면 타국에서 활동하는 동포 예술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동포 ON이 문화 프로그램, 공공외교, 청년 사업을 동반하는 ‘허브’가 된다면 체감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또한 동포사회의 경험을 ‘공공 지식’ 아카이브로 축적해 한글 교육, 차세대 정체성, K-컬처 협력 사례 등을 체계화하면 동포청 디지털 DB와 시너지를 내고, 장기 정책의 품질을 높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대와 직업군을 아우르는 포용적 플랫폼으로 1세대부터 청년, 상공인 및 예술인까지 다양한 콘텐츠와 참여 창구를 활성화 시켜 준다면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동포들이 콘텐츠제작 협력은 물론 직접 참여에 적극 나설 것이다.

“700만 동포는 시혜 대상 아닌 대한민국 소중한 파트너”

‘동포ON’ 통한 24시간 소통 강화…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시동 “출신국별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 실현 목표로 정책 전반 개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출신국별로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을 목표로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도록 동포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월 9일 인천 송도 본청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전 세계 700만 동포를 하나로 잇는 24시간 유튜브 플랫폼 ‘동포ON’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동포ON은 동포 정책, 한국어 교육, K-컬처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콘텐츠 허브’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 청장은 “오는 3월 서비스 개시 100일을 맞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더욱 고도화된 소통 채널 구축을 예고했다.

올해 동포청이 가장 주력하는 핵심 과제는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체계 구축’이다. 김 청장은 “그동안 기초 자료 부족으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동포 기초 DB를 구축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익이 아닌 동포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신국별로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을 목표로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도록 동포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외국민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등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 인 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한인 정체성 강화,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동포 정책의 또 다른 과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국적, 병역, 복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을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리해 나가겠다”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김 청장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 예산’ 약 80억 원이 동포청으로 이관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이는 부처별로 흩어진 동포 업무를 일원화하는 첫 사례로, 향후 동포청이 명실상부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입지를 다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달라진 정책 위상을 반영한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와 주요 국정 과제에 재외동포 정책이 공식 포함되면서, 동포 정책이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거주 86만 귀환 동포에 대한 포용 정책도 강화된다. 국내 체류 동포는 전체 외국인(약 265만 명)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신설된 '귀환동포정책지원과'를 통해 취업과 교육 전반을 지원하고, 특히 사할린·고려인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서는 단순 체류 관리를 넘어선 '따뜻한 정착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동포 청년 인재 유치 사업'을 통해 학업부터 지역 정착까지 잇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재 동포청 예산은 700만 동포 사회의 규모와 기대치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충실히 기획·사업화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청장의 행정 철학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동포 사회의 주체성 회복'이다. 그는 "정부가 차린 밥상에 동포들이 참석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단언했다. 지난해 세계한인회장 대회에서 한인회장들이 대회를 직접 주최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그 시작점이다. 김 청장은 "이 같은 변화는 동포 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동포청은 흩어져 있던 한상, 한인회, 직능단체, 차세대 단체 등의 행사를 통합한 '세계한인대회'를 올해 처음 신설한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상대회

를 같은 시기에 개최해 세대와 직능, 지역을 넘나드는 거대한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 청장은 재외동포 정책이 특정 집단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김 청장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수출 시장의 개척자이자 민간 외교관"이라며 "정부가 가기 어려운 곳에 동포들이 먼저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동반자적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과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과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이 적합한 영역은 민간이 맡을 수 있는 로드맵을 연내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과 정책집행의 실효성,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동포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과 동포 모두가 공감하는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태권도 한류의 시초’ 이준구 사범

“태권도의 세계화와 한미 스포츠 외교에 크게 기여”

워싱턴 D.C. ‘미 역사상 가장 성공하고 유명한 이민인 203인’에 선정
이소룡, 무하마드 알리에 태권도 가르친 美 태권도 대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태권도의 세계화와 한미 스포츠 외교에 크게 기여한 고 이준구(1932~2018) 태권도 사범을 선정했다.

이준구 사범은 미국 사회에 태권도를 처음 뿌리내린 인물로 평가받으며, 태권도를 단순한 무술을 넘어 문화·외교·스포츠 교류의 매개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로 불리며, 태권도 보급 초기부터 혁신적인 접근으로 주목받았다.

이준구 사범은 193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16세 때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처음 접했다. 이후 1957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던 중 태권도 클럽을 만들어 미국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미국 내 태권도 보급의 첫발을 내디뎠다. 태권도의 대중화를 이끈 삶

1962년에는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워싱턴 D.C.로 이주해 ‘준리(Jhoon Rhee) 태권도장’을 개관했다. 이후 제임스 클리블랜드 하원의원의 강도 피해 기사를 접하고 그에게 태권도를 지도한 것을 계기로 미 의원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했고, 이는 미 하원 의사당 내 태권도장 개설로 이어지며 태권도는 미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그는 1965년부터 미 의회 태권도 클럽(U.S. Congressional Tae Kwon Do Club)을 설립해 의원들을 무상으로 지도하며, 태권도를 정치·외교 무대에 올려놓는 데 기여했다.

이 사범은 미국 전역에 60여 개의 태권도장을 개관하며, 태권도를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도장은 1980년대까지 워싱턴 지역에만 11개가 운영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6월 28일 ‘준리의 날’ 지정된 태권도 선구자

이준구 사범의 활동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됐다. 그는 미국 내 각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내 외교관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권유했고,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외교관들의 요청으로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의 길을 열었다. 이는 태권도 세계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특히 1991년부터 구소련(현재 독립국가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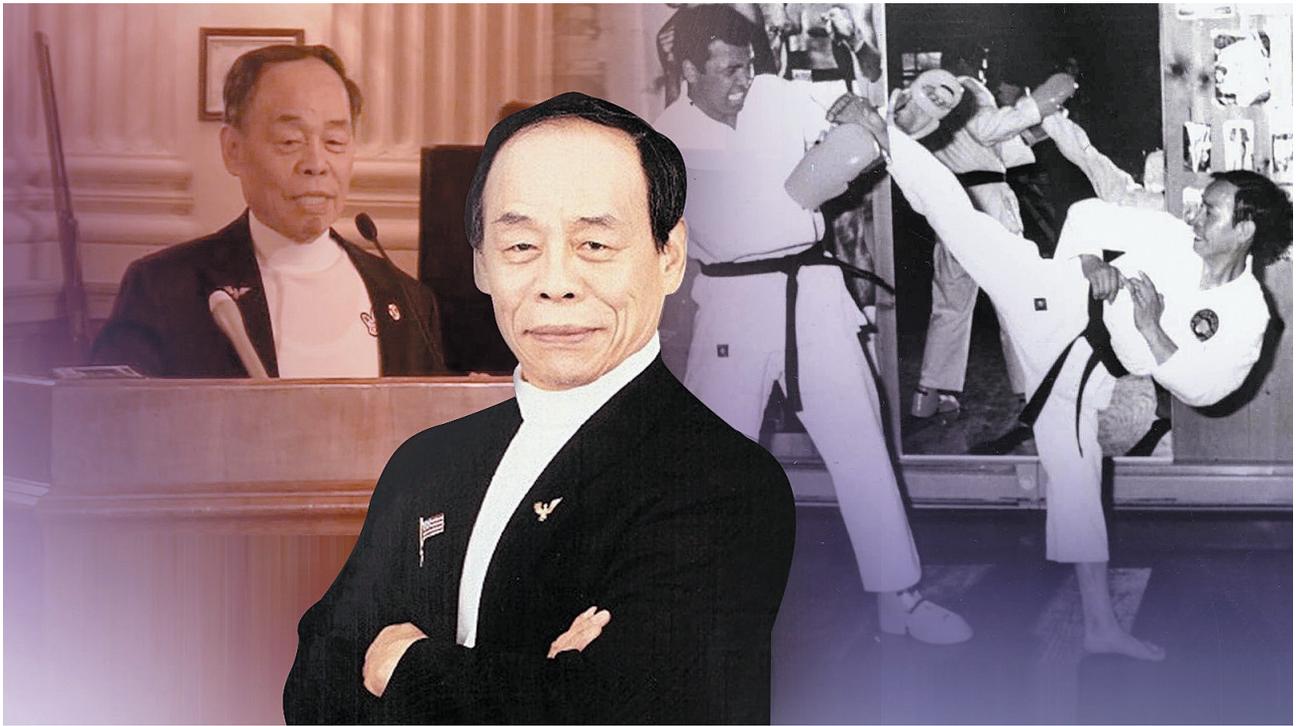
2023년 5월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준구 대사범 추모 5주년 기념 - 준리 기념사업단 출범식’

에 진출해 무도가 불법이던 당시 고위 관리들을 설득해 무도 합법화를 이끌어냈고, 가라테 사범들을 모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구소련 내 태권도 합법화와 확산에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등 지역에 65개 이상의 준리 태권도장을 설립했다.

이 사범은 브루스 리(이소룡), 무하마드 알리 등 세계적인 인물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태권도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브루스 리에게 발차기 기술을 전수하고, 그로부터 수기(손기술)를 배웠으며, 1973년 영화 ‘흑권(When Taekwondo Strikes)’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무하마드 알리에게는 태권도 기술을 가르쳐 그의 방한을 성사시키는 등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그는 ‘마셜 발레(Martial Ballet)’라는 음악에 맞춘 무술 형태를 창안해 도장 커리큘럼에 도입하기도 했다.

안전성 강화 보호장비 직접 개발

제자가 시합 도중 크게 다치자 태권도의 안전성 강화를 고민한 이 사범은 머리·가슴·장갑·팔꿈치 보호장비를 직접 개발했다. 이는 오늘날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사용되는 보호 장비



1월 '이달의 재외동포'에 선정된 이준구 사범

의 원형이 되어 태권도의 안전성과 경기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전까지 무술에서 보호 장비가 거의 없던 시기였기에 이 발명은 무술 훈련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으로 평가된다.

이 사범은 미국 태권도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한미 태권도인 우호 연수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 하원의원 4명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후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고문을 맡아 태권도를 통한 한미 간 우호 증진과 스포츠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그의 공적을 기려 2003년 워싱턴 D.C.는 6월 28일을 '준리(Jhoon Rhee)의 날'로 지정했으며, 2000년에는 '미 역사상 가장 성공하고 유명한 이민인 203인'에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선정됐다. 1992년에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Daily Points of Light'로 인정받았고, 2009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2009년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준구 사범은 평생을 태권도에 바치며 미국과 세계 곳곳에 태권도의 가치를 알린 태권도의 대부이자 한류의 시초"라며 "그의 열정과 헌신이 널리 알려지고, 후대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1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 홍명기 전 M&L Hong 재단 이사장, 임천택 독립운동 지사,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박노학 전 사할린역류회한국인회 회장, 이의경 지사, 서세모 의학박사, 서갑호 회장, 임덕상 교수, 오기문 전 재일대한부인회회장 등이 선정됐다. 



이준구 사범이 지난 2010년 9월 30일 미국 의회 캐년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80회 생일 축하파티에서 머리에 물잔을 올리고 송판 격파하기 시범을 보이는 모습.



1976년 세계 복싱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왼쪽)에게 발차기 시범을 보이는 이준구 사범

재외동포, 일본은 늘고 중국은 줄었다

동포청, '재외동포현황' 발표...전 세계 181개국에 700만 명 거주

동북아·북미 감소, 남아태·유럽 증가... '대규모 거주지 축소·신흥 지역 확대' 뚜렷

전 세계 181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약 700만 명으로 집계되며, 2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소와 증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적 변화가 통계로 확인됐다. 전통적인 대규모 거주 지역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 일부 신흥 지역에서는 뚜렷한 증가 흐름이 나타나며 재외동포 분포의 축이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2025 재외동포현황'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700만6천7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708만1천510명과 비교해 1.06%(7만4천807명) 감소한 수치다. 감소 폭은 크지 않지만, 지역별 증감 양상은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이번 통계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외공관이 주재국 공식 통계자료와 함께 민원 처리 현황, 재외국민 등록부, 재외선거인 명부, 동포단체 자료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것이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가장 근

접한 시점의 통계를 활용하되 해당 통계원의 기준 시점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재외동포 현황 통계위원회' 처음 구성

재외동포청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재외동포 및 통계 전문가가 참여한 '재외동포 현황 통계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검증 절차를 거쳤다.

거주 자격별로 보면 재외국민은 240만2천26명, 외국국적동포는 460만4천6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각각 2.67%(6만5천943명), 0.19%(8천864명) 감소한 수치다.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해외 체류 구조의 변화가 단기 이동이나 귀환 흐름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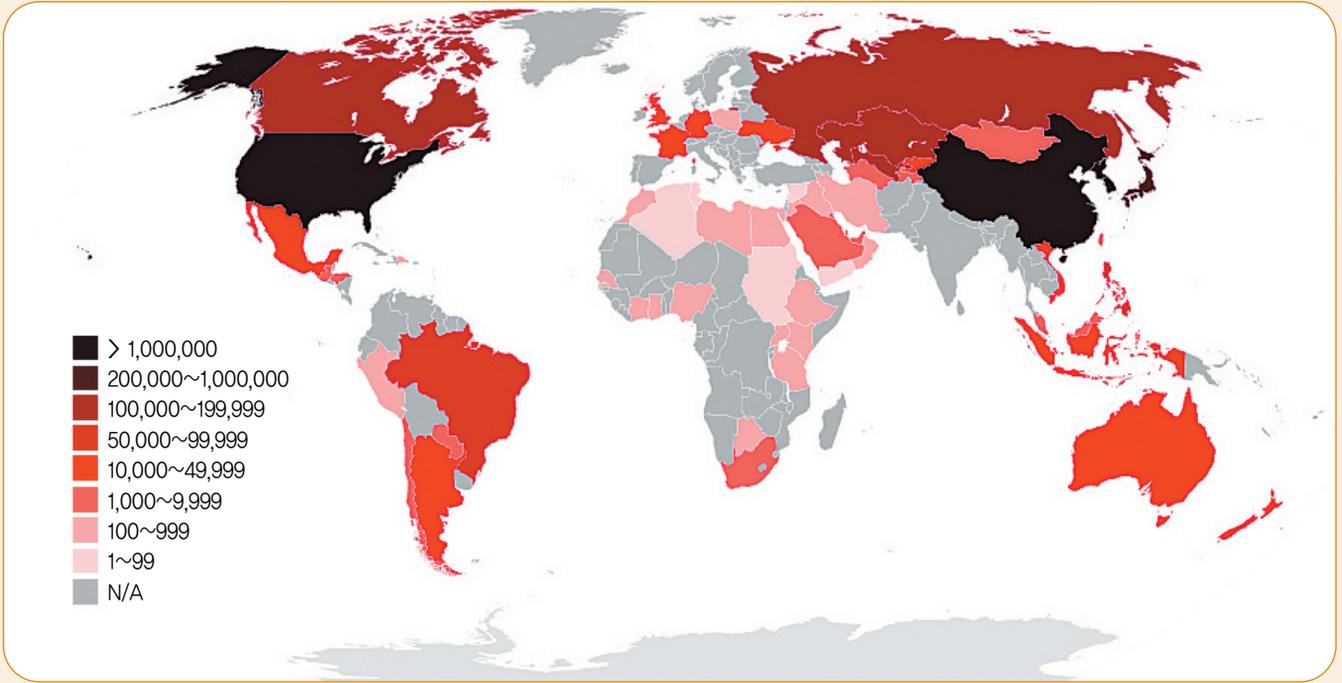
반면 남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은 각각 12.50%(6만4천171명), 7.60%(1만5천65명) 증가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전

거주자격별 현황

구분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명)	1,037,047	1,208,884	156,095	2,402,026	4,604,677
증감(명)	14,036	-84,958	4,979	-65,943	-8,864
증감률(%)	1.37	-6.57	3.29	-2.67	-0.19

지역별 현황

구분	동북아	남아태	북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CSI	아중동
총계(명)	2,816,295	577,483	2,820,200	106,348	213,161	444,971	28,245
백분율(%)							
증감(명)	-102,728	64,171	-42,581	3,597	15,065	-11,182	-1,149
증감률(%)	-3.52	12.50	-1.49	3.50	7.60	-2.45	-3.91



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난 지역으로 평가된다.

전체 재외동포의 87%가 분포한 동북아·북미·러시아·CIS 지역에서 감소세가 나타나 전체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동북아는 3.52%(10만2천728명), 북미는 1.49%(4만2천581명), 러시아·CIS 지역은 2.45%(1만1천182명) 각각 감소했다. 이들 지역의 감소 규모가 전체 재외동포 수 축소를 주도한 셈이다.

일본과 중국의 대비가 두드러져

국가별로는 일본과 중국의 대비가 두드러졌다. 일본은 국제결혼에 따른 자녀 수가 이번 통계부터 반영되면서 재외동포 수가 19.80%(15만8천852명) 증가했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국내 귀환과 제3국 이주가 늘면서 12.39%(26만1천486명) 감소해, 단일 국가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미국은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불참 비율이 기존 26%에서 15%로 조정되면서 재외동포 수가 다소 줄었고, 러시아·CIS 지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아태 지역은 관광산업 회복과 기업 진출 증가, 유럽 지역은 취업 및 유학생 유입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미국(255만7천47명)으로, 이어 중국(184만8천241명), 일본(96만970명), 캐나다(26만3

천153명), 베트남(19만2천683명), 우즈베키스탄(17만5천338명), 호주(17만215명), 카자흐스탄(12만2천554명), 러시아(11만3천42명), 필리핀(5만2천695명) 순으로 집계됐다.

향후 재외동포 정책 수립 활용 기대

재외동포청은 '2025 재외동포현황'을 책자로 발간해 주요 정부 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통계가 향후 재외동포 정책 수립은 물론 학술 연구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산출 근거의 투명성을 위해 주재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없어 추정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산출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통계 자료에서 제외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조사 대상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데이터 활용은 재외국민 등록수의 경우, G4K 시스템(재외동포민원포털)에 등록된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또 변동 사유 소명은 직전 통계(2023년 발간, 2022년 말 기준) 대비 3% 이상의 증감이 발생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게 하여 데이터의 급격한 변화를 검증했다. [▶](#)

‘광주는 할아버지 고향이자 내 마지막 안식처’

내달 ‘문빅토르 미술관’ 개관...정체성 있는 문화 교두보 기대

‘5·18’ 주요 인물과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들 초상화 작업 준비 중

“우리는 자기 고향이 없죠. 기차를 타고 땅 위를 달리지만, 사실은 땅 안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떠돌아야 했던 우리 고려인들은 마치 새처럼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서 만난 문빅토르(74) 화백의 눈동자에는 카자흐스탄의 거친 바람과 고려인의 시린 역사가 동시에 머물러 있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고려인 3세이자 대표적인 한인 미술 거장인 그는 이제 유랑의 삶을 접고 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 그중에서도 자신의 뿌리가 닿아 있는 광주에 안착했다.

캔버스 위에 찍어낸 고려인의 한

고려인마을이 마련해준 그의 작업실 겸 거처에는 캔버스 위로 무수한 점들이 모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강제 이주의 비극을 상징하는 기차부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고려인의 얼굴들까지. 문 화백과의 대화에서는 그가 평생을 바쳐 그려온 작품 세계와 고려인으로서의 삶의 궤적이 묻어났다.

문 화백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고려인종합지원센터 2층 외벽에 걸려 있는 설치작품 ‘하늘을 날오는 이주열차’다. 1937년, 영문도 모른 채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로 내몰렸던 고려인들의 고통을 벗어나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는 고려인들의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작품 속 기차에 창문을 그려 넣은 것은 그것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증조부 때부터 러시아에 정착해 살았지만 우리는 늘 떠나야 했죠.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어도 독립 후 거세진 민족주의 정책은 우리를 다시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수한 의사와 과학자도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현실 속에서, 고려인의 운명을 열차에 투영했습니다.”

가슴에 훈장 14개 그려 넣은 흥범도 초상화

그의 예술적 각성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TV로 지켜보며 시



지난 12일 광주 고려인마을 내에 있는 작업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문빅토르 화백.

작됐다. 1989년 처음 방문한 서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한 달간 머물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만 접했던 우리에게 한국의 발전상은 기적 같았죠.” 이 경험은 그가 강제 이주라는 무거운 주제를 본격적으로 화폭에 담는 계기가 됐다.

문 화백의 화풍을 상징하는 독특한 점묘법(Pointillism)은 역설적으로 생사의 고비에서 완성됐다. 심장 수술 후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던 그는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작은 종이에 점을 찍으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다.

“누워 있을 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작은 붓으로 점을 하나 하나 찍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더군요. 프랑스에서 시작된 전통 기법이지만, 저에게 점은 고려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이자 끈질긴 생명력과 같습니다.”



지난 12일 광주 고려인마을 내에 있는 고려인종합지원센터 2층 작업실에서 홍범도 장군 초상화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문빅토르 화백. 이 작품은 고려인마을 홈페이지에 경매가 200억원에 올라와 있다.

그의 붓끝은 역사적 인물들에게도 향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던 홍범도 장군의 초상화에는 문 화백의 유감이 깊게 서려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강제 이주 후 러시아 정부의 행정 탓에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던 장군의 분노를 그렸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한 우리 영웅에 대한 헌사였죠.”

미술관 통해 고려인의 품격 있는 예술 알릴 것

고려인마을 홈페이지에 경매가 200억원에 올라 있는 이 작품에서 그는 홍 장군의 공적을 기려 훈장 14개를 가슴에 그려 넣었다.

그가 광주에 정착한 것은 운명과도 같았다. 1994년 그림 20여 점을 들고 무작정 한국을 찾았던 그는 우연히 광주 금호문화재단에서 전시회를 열게 됐고, 모든 작품이 매진되는 큰 성공을 거뒀다. 그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광주에서 ‘문바위’를 찾았습니다. 제 성씨인 문 씨의 시조 묘역과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보며, 제 뿌리가 이곳 광주에 있음을 확신했죠. 1886년 러시아 우수리스크로 이주했던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을 고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3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잘못된 무릎 수술로 고생하던 그는 한국 의료진과 이천영 광주 고려인 마을 이사장을 비롯한 동포들의 도움으로 재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 그는 자신을 품어준 광주 고려인마을에 보답하기 위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월 고려인마을에 문 화백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공식적인 ‘문빅토르 미술관’이 문을 연다. 1층은 갤러리, 위층은 작업실로 꾸며져 방문객들이 고려인의 역사를 예술로 체험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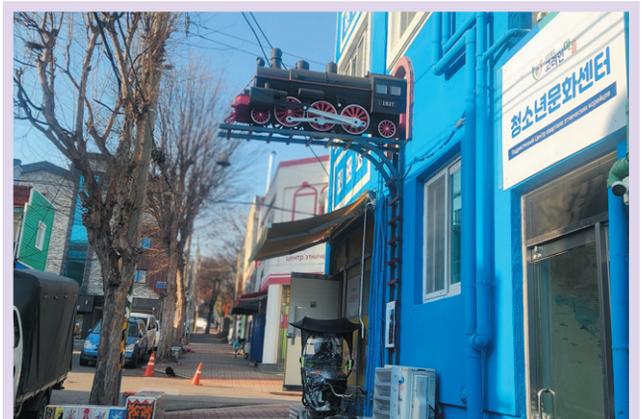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작품이 나와”

“내 그림이 카자흐스탄에 남겨지면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국에서는 고려인의 역사가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과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동자로만 인식되는 고려인의 이미지를 품격 있는 예술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는 젊은 고려인 후손들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한국에 와서 돈만 벌 뿐, 한국어와 역사를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매일 한두 마디라도 공부하면 1년이면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언어를 알아야 자신의 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문 화백은 캔버스에 다시 점을 찍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작품이 나온다”는 그의 말처럼, 그가 찍는 무수한 점들은 이제 흩어진 고려인의 역사를 광주라는 도화지 위에 하나로 이어 붙이고 있었다. 



지난 12일 광주 고려인마을 내에 있는 고려인종합지원센터 2층 외벽에 설치된 문빅토르 화백의 대표적인 작품 ‘하늘을 날으는 이주열차’. 이 작품은 1937년 강제이주라는 깊은 역사의 터널을 지나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는 고려인들의 소망을 담았다.

“음악으로 하나 된 밤”...재외동포 아티스트 모국 무대 13일 서울 스카리아트홀서 무료로 꾸민 ‘2026 코리안 페스티벌’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예술인들이 모국에서 음악으로 하나 되는 무대인 ‘2026 코리안 페스티벌, 동향(同響) - 같은 울림’을 개최했다.

13일 오후 7시 서울 강서구 예원문화센터 스카리아트홀에서 열린 무대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재외동포와 내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다른 삶의 터전에서 활동해 온 재외동포 예술인들이 한 무대에서 ‘같은 울림’이라는 주제로 교감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열렸다.

재미동포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감독 에드윈 김, 재호주동포 드러머 콜로이 김, 재미동포 재즈 색소폰 연주자 그레이스 켈리가 출연했다. 여기에 국내 귀환동포 어린이들로 구성된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서로 다른 국적과 삶의 배경을 지닌 아이들의 노래는 이날 공연장을 ‘같은 울림’으로 채웠다. 무대에 오른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은 중앙아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해 고려인마을 대표 창작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의 수록곡 ‘동요 메들리’, ‘우리말 교육’, 박학기 작사·작곡의 ‘아름다운 세상’을 선보였다.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울려 퍼진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주와 정착의 시간을 넘어 하나의 화음으로 이어졌고, 공연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감동의 박수가 쏟아졌다.

2017년 창단된 어린이합창단은 고려인 독립투사 후손 4~5세 자녀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러시아 등 다양한 출신의 고려인 자녀들로 구성돼 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연습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배움이 됐다. 한국어와 러시아



광주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공연 모습

어가 뒤섞인 연습실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다리가 되어 주었고, 음악은 가장 빠르게 마음을 잇는 공통어가 됐다.

합창단의 단장이자 지휘자인 조정희 호남대 교수는 “아이들은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졌지만 ‘고려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음악으로 공유한다”며 “노래하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과 목소리가 달라지고, 그 변화가 이 활동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광주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은 공연 활동과 함께 고려인마을과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알리는 문화 사절로서 역할도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합창단의 공연 모습을 담은 온라인 홍보 영상을 제작해 한국 문화와 고려인 공동체의 이야기를 세계에 소개한 바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을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

고려인 청년들, 호텔서비스 배우며 취업 역량 키워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청년 40명, 1월 한 달간 국내 직업연수 참여



지난 5일 경기도 안산시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에서 열린 입교식

국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지역 고려인 청년들이 모국 대한민국에서 직업 역량을 키우는 연수에 참여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월 5일부터 30일까지, 국내외 고려인 청년 40명(해외 27명, 국내 13명)을 대상으로 직업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수기관은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이다.

참가자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선발됐으며, 한식 조리·제과제빵 분야 등에서 총 120여 시간의 실습을 하고, 이와 더불어 80여 시간의 온·오프라인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또한 연수 기간 중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식품서비스 실습 등 현장 중심의 호텔서비스 교육을 받고, 증류주 만들기, 다도 체험 등 전통음식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경복궁, 불국사 등을 견학하는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고려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역량을 높이고, 모국

과의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6월에 실시한 코딩·산업디자인 분야 산업연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고려인 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연수 입교식은 1월 5일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에서 열렸으며, 육광심 이사장, 이원영 학장과 재외동포청 이규현 아주러시아동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원영 학장은 “음식은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 국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으며, 거주국에 한국을 알리는 자선이 될 것이다”라면서 “1개월의 집중 연수를 통해 연수생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라며, 인생에 남을 값진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수 기관인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은 1989년 설립된 호텔관광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 한국호텔관광전문대학교, 한국문화예술전문대학교, 엠블던호텔 등을 운영하며 음식 관광 레저 산업 종사자를 위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지원...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재외동포청, 국제이주기구(IOM)와 국내 귀환 희망동포 지원 협력 논의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8일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이주기구는 UN 산하 이주 분야 국제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 171여개 국가에 사무소가 있다. ▲이주 관련 정부 정책 자문 및 협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지원 ▲난민 재정착 지원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이주 분야 인식 개선 등을 수행한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하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왼쪽)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6만 국내 귀환동포 정착, 전담부서가 돕는다"

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신설...교육·인재 유치·권익 신장 추진

재외동포청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귀환 동포는 약 86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민족적 정체성 등을 우리 국민과 공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전담해 지원하는 부서가 없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포청은 지난해 4월부터 임시조직인 '국내동포지원TF'를 운영하며 귀환 동포 지원을 시작했으나, 귀환 동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지원 수요도 커지면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신설되는 '귀환동포정착지원과'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의 사업 지원 ▲나이와 상황에 맞춘 동포 정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우수 동포 인재 국내 유치 및 정착 지원 ▲국내 귀환 동포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안내하는 김경협 청장

관련 조사·연구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포청 소관 국정과제이자 중점과제인 '국내 귀환 동포 지원 강화'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글학교는 동포사회의 뿌리 '학생 기자단'으로 현장을 알리고 미래를 연다

한글학교는 단순한 모국어 교육기관을 넘어선다. 이민 사회에서 아이들이 겪는 소외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보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정서적 요람'이자 '자아의 산실'이다.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동포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한글학교의 질적 도약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글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의 닻을 내리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뜻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미주 이민 역사 123년, 우리 동포사회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하지만 화려한 지표 뒤에는 늘 마음 한구석 아릿한 과제가 남아있다. 바로 차세대들의 정체성 확립 문제다. 필자는 미국 공립학교 교사로 주중을 보내고 주말에는 한글학교 교장으로 28년을 살아오며, 한글학교가 결코 단순한 '언어 교육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목격해 왔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필자는 이 정책의 핵심이 '한글학교의 질적 도약'에 있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제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한국의 역사, 문화, 정신을 포괄하는 '한국학교'로의 개념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외동포청의 출범이 단순히 '2세 교육 지원'이라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민족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 투자'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은 그간 묵묵히 헌신해 온 교사들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의 헌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세계 한글학교 학생 기자단' 프로젝트에 주목한다. 최근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국 서부, 중국, 독일, 프랑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까지 전 세계 10여 개 지역 한글학교가 뜻을 모아 첫 화상 회의를 가졌다. 고등학생 기자들이 직접 지역 뉴스를 취재하고 다국어(한국어·영어·프랑스어 등)로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 신문은 전 세계 차세대 동포들을 잇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구조적인 교육 혁신 또한 시급하다. 예컨대 뉴욕, 롱아일랜드, 뉴저지 캠퍼스를 하나로 묶는 '통합 캠퍼스' 운영안은 교육 자원



황현주
미국 뉴저지한국학교장

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전문적인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세 교육의 전문성 확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혁신이 실현되려면 재외동포청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하는 동포 경제인, 여성 지도자, 선출직 한인 정치인 등의 네트워크를 차세대 교육에 집중시킨다면 민족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2세, 3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동포청의 장기적인 기본 사업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한글학교의 재정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포사회의 단결을 강조하고 싶다. 개인의 견해 차이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40여 년 역사의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같은 기존 체제를 변화된 AI 시대에 맞게 내실화하며 힘을 보태야 한다. 분열은 아이들에게 보여줄 올바른 교육적 모델이 아니다.

한글학교는 동포사회의 뿌리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그 나무에서 피어난 꽃이 전 세계를 향해 향기를 발할 수 있다. 출범 3년 차를 맞은 재외동포청이 변화된 환경을 깊이 이해하며 차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필자 또한 아이들의 현장을 알리고 미래를 여는 학생 기자단의 신문 창간호가 성공적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다. **창**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5일: 국내외 고려인 청년 직업연수 입교식
- 8일: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 면담
- 13일: '코리안 페스티벌-동향(同響): 같은 울림' 개최
- 15일: 1월 '이달의 재외동포', '태권도 한류의 시작' 이준구 사범 선정
- 26일: 재외동포청-한국경제학회 한상경제권 활성화 포럼

재외동포청 공지

“궁금증 한눈에”...사할린 동포 법률 사례집 발간

영주귀국부터 국적 취득까지 실무 사례 중심 문답 풀이

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할린 동포 법률상담 Q&A 사례집'을 국문본과 러시아어본 2종류로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사할린 동포 전담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실제 접수된 주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영주귀국 신청 방법부터 국적 취득, 건강보험, 주거 지원 등 동포들이 한국 생활 중 직면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알기 쉬운 문답식 풀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주귀국 대상과 관련해 1세 동포의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주(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가 동반 귀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자녀 사망 사실을 증빙할 서류만 있다면 외손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담았다.

동포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서류 준비 절차도 상세히 안내한다. 러시아와 한국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해 동일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증명서 발급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영주귀국 재신청 시 아들의 출생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는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배우자의 혼인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최신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등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는 사할린 동포 1·2세는 국적판정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지만, 3세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적판정 심사 기간(약 4~7개월) 중에도 자유로운 출국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 동포



사할린 동포 법률상담 Q&A 사례집 표지

들이 실제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비중 있게 다뤘다.

국내 생활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도 대폭 보완됐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내 해외 체류 시에는 자격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어 재입국 후 재가입해야 한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적 취득이 지연되어 임대주택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구제 방안 등도 소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사례집을 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딱 맞는 순간, 딱 맞는 복지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맞춤 검색 및 온라인 신청 가능!



다양한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복지서비스
찾기 및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나의 복지정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까?



복지지갑

딱 맞는 복지서비스,
안내 받을 수 있을까?



복지멤버십

**복지로
접속방법**

PC

bokjiro.go.kr 접속 또는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



Website

모바일

복지로 어플 다운로드 또는
검색창에서 '복지로' 검색



Google Play App Store

당신의 생각으로 빛나는 대한민국



공모기간 1.8.~4.15. 18시
1등 최대 1억원
우수 참여자 1만명 3만원



From Idea to Economy

모두의 아이디어

2024.7 ~ 2026.1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참여자 한 명이 국민
10,000명을 대표합니다.

조사대상

전 국민 대표로 표본 선정된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조사원이 국민 대표를 찾아갑니다.

조사내용

환경노출관련 설문조사
환경오염물질 농도 분석 및 임상검사
건강한 생활습관 안내

"본 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법정조사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 재외동포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유튜브



재외동포청 인스타그램